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

* 본 보고서 오태현·이준엽(2016), '한일경제협력의 미래 발전방안 모색: 한일경제협력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한양대 「비교일본학」 제38집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일 두 나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으로 '한일경제협력지수'의 개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지수는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경제협력의 이행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관련 문헌연구와 주요 경제지표 분석, 그리고 한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일경제협력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일경제협력의 성과 점수가 잠재력 점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인력교류와 상품교류가 낮게 나타났음
- 셋째 잠재력지수 구조차원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야는 시장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수준의 유사성과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잠재력지수 기대 차원의 구성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

1. 서론

-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50여 년 동안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협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설정 없이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국교정상화 이후 보상적 차원의 유·무상 차관 유입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대일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BIT체결 등의 정부간 경제협력을 추진했음
 -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추진한 경제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역량 등 정량적인 몇몇 지표에 크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임
- 또한 관련 기업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협력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절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역량, 투자액 등의 정량적인 지표와 더불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협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방법으로 현재의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으로 ‘한일경제협력지수’의 개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경제협력의 이행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둘째 ‘한일경제협력지수’는 한일경제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또한 개발되는 지수는 현재의 협력 정도를 과거의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한일경제협력지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영역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의 종합적인 친밀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셋째 지수로 나타나는 경제협력 수준은 관련된 정책을 건의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한일경제협력지수는 앞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음

2. 지수개발 과정

- 특정 두 나라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한 기존 연구를 찾기는 어려움
 - 다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는 동북아지역의 통합지수개발을 시도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동북아의 기능적 통합이 EU와 NAFTA와 비교해서 그 통합의 정도가 떨어지지만 초기 유럽의 수준 정도에는 도달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4개 통합지수 및 12개 하위지수 간의 비중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통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앞으로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통합지수를 도출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각종 지수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를 주로 하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지수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세계경제포럼이 개발한 무역가능성지수(ETI, The Enabling Trade Index)를 들 수 있음
 - 이 연구 모형에서는 Market Access, Border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Operation Environment를 무역을 촉진하는 영향요인(Drivers)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관련 연구로는 UNCTAD가 개발한 무역개발지수(TDI, The Trade and Development Index)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수에서는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rade Policies and Processes 그리고 Trade and Development Performance를 무역을 촉진하는 영향요인(Drivers)으로 제시하고 있음
 - 더불어 UNCTAD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잠재력지수(The FDI Potential Index)도 함께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음
- 세계무역센터가 개발한 무역성과지수(TPI, The Trade Performance Index)는 무역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Current performance, General profile and Decomposition of changes in world market share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이 개발하여 발표하는 세계무역지표(The World Trade Indicators)도 경제협력 지수를 개발하는데 참고가 됨
 - 다만 이상에서 제시한 관련 연구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합 및 무역의 심화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수를 개발한 것으로, 특정 두 나라간의 경제협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는 지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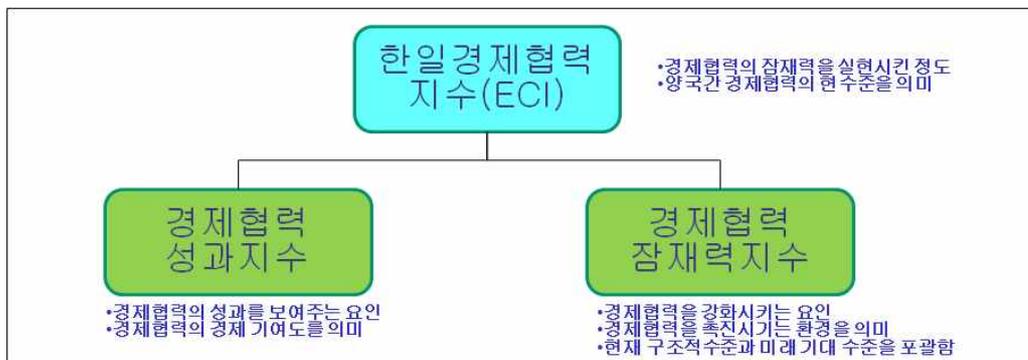
- 한일경제협력지수는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킨 정도(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협력으로 나타난 성과(지수)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지수)의 차이로 경제협력지수를 구할 수 있음
 - 또한 한일경제협력지수는 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한일경제협력지수는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는 잠재력(지수)와 경제협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성과(지수)로 구성됨

<표 1> 한일경제협력지수 개요

정의	- 한일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킨 정도(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 경제협력 성과지수와 경제협력 잠재력지수의 차이 - 영문으로는 Economic Cooperation Index(ECI)라 명명함
의의	- 한일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한일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함 - 한일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는 잠재력지수와 한일경제협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성과지수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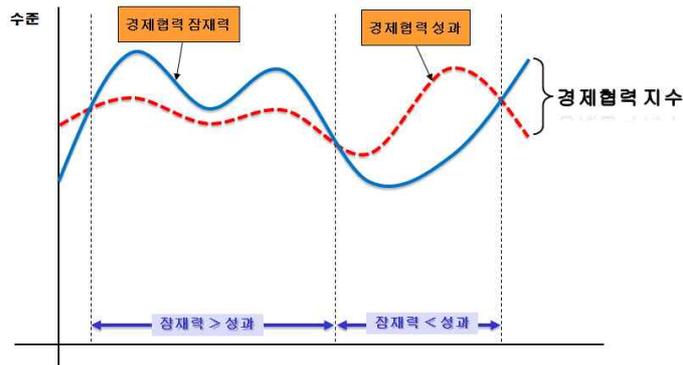
- 경제협력지수를 구성하는 성과지수와 잠재력지수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성과지수는 일정기간 동안 추진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경제협력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낸다.
 - 반면 잠재력지수는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의미하며, 현재의 구조적 수준과 미래의 기대 수준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1> 한일경제협력지수의 구성



- 또한 <그림2>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경제협력 성과가 경제협력 잠재력보다 낮은 시기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잠재력 > 성과)
- 반면 성과가 잠재력보다 높은 시기는 잠재력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의미함 (잠재력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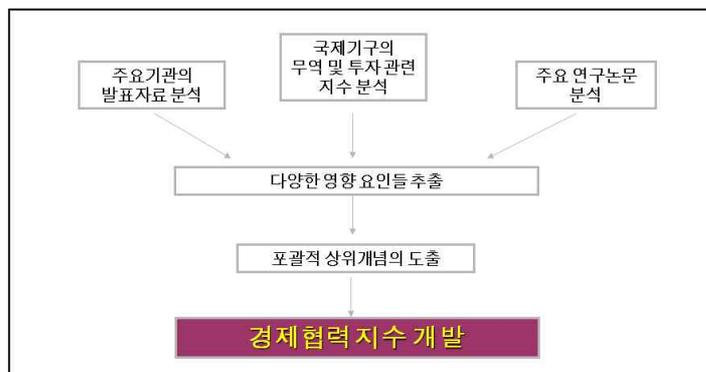
<그림 2> 경제협력과 경제협력지수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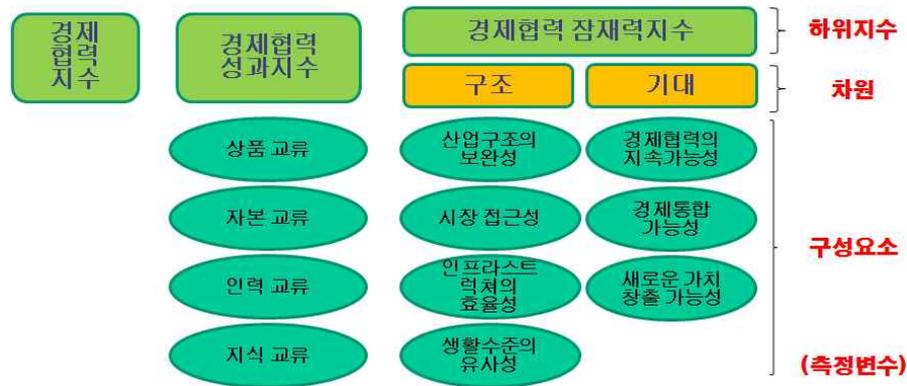
3. 지수개발 방법

- 경제협력지수를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로 앞서 언급한 잠재력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림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이러한 영향요인(구성요소)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무역 및 투자관련 지수와 주요기관의 발표자료 및 연구논문을 분석하였음
- 더불어 이들 영향요인(구성요소)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지수를 구성하는 포괄적 상위 개념을 도출하였음

<그림 3> 경제협력지수 모형개발 과정



<그림 4> 경제협력지수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요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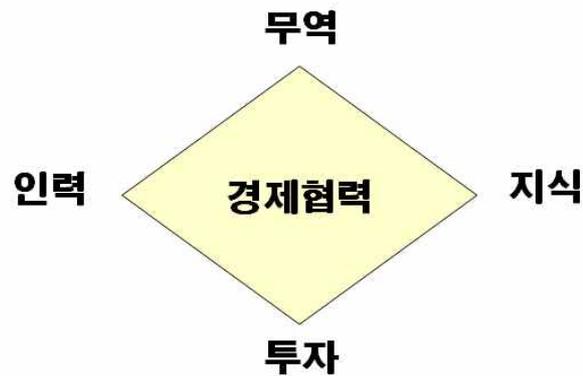
- 먼저 경제협력성과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상품, 자본, 인력, 지식의 교류를 들 수 있으며, 이들 4가지 구성요소가 경제협력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경제협력 잠재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는 구조와 기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야 함
-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산업구조의 보완성, 시장 접근성,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 생활수준의 유사성과 같이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반면 해당 기업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 경제통합 가능성,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각각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성과지수와 그 구성요소별로 측정변수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음

3-1. 성과지수 개발

□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4개의 구성요소(상품, 자본, 인력, 지식)로 구성하였음

-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경제협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무역(상품), 투자(자본), 인력 그리고 지식의 교류 정도를 모두 포괄하여 개발하였음

<그림 5> 경제협력 성과지수 모형



-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각 구성요소와 측정변수는 <표 2>와 같으며 각각의 구성요소별 측정변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상품교류는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정도,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규모와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의 세계무역 기여도, 양국간 무역의 양국 GDP 기여도,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둘째 자본교류는 양국간 자본의 교류 정도, 양국간 직접투자의 규모와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변수는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총 해외직접투자 기여도,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GDP 기여도, 양국간 직접투자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셋째 인력교류는 양국간 인력의 교류 정도, 양국간 인력 교류의 규모와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변수는 양국간 여행객 수의 양국 총해외여행객수 기여도, 양국간 유학생 수의 양국 총 해외유학생수 기여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넷째 지식교류는 양국간 정보와 지식의 교류 정도, 양국간 지식 교류의 규모와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변수는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양국 총 기술무역액 기여도,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표 2>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구성요소와 측정변수

구성 요소	측정변수	측정변수 설명 지표
상품	양국간 무역의 세계무역 기여도	한일무역량 / 세계무역량
	양국간 무역의 양국GDP 기여도	한일무역량 / (한국 GDP + 일본 GDP)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 한국의 대일본 수입액
자본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총 해외직접투자 기여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 (한국의 세계 FDI 투자액 + 일본의 세계 FDI 투자액)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GDP 기여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 (한국 GDP + 일본 GDP)
	양국간 직접투자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인력	양국간 여행객수의 양국 총 해외여행객수 기여도	한일간 여행객 수 / (한국의 해외 여행객 수 + 일본의 해외 여행객 수)
	양국간 유학생수의 양국 총 해외유학생수 기여도	한일간 유학생 수 / (한국의 해외 유학생 수 + 일본의 해외 유학생 수)
지식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양국 총 기술무역액 기여도	한일간 기술무역액 / (한국의 전체 기술무역액 + 일본의 전체 기술무역액)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기술 수출액 / 일본의 대한국 기술 수출액

3-2. 잠재력지수 개발

- 한편 잠재력 지수는 구조차원과 기대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먼저 구조차원은 다음과 같음
 -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한 국가의 생산품이 타국에서 소비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에 걸친 구조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음
 -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에는 <그림 6>에서 보듯이 산업구조, 통관, 인프라스트럭처, 국민의 생활수준 등이 모두 포함됨
 - 따라서 경제협력 잠재력 지수 구조차원은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구조적 영향요소들에 대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개발하였음
- 구조차원의 각 구성요소의 측정변수는 <표 3>과 같이 개발하였음
 - 첫째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매력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양국 수출 주력산업의 유사성 정도, 양국 무역의존도의 유사성 정도, 양국간 무역의 보완성 정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둘째 시장접근성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용이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양국간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관세, 통관비용 등)의 존재여부와 그 크기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셋째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은 경제협력 시에 발생하는 비용효율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양국 인프라스트럭처(교통, 물류 등)의 효율성과 통신의 상호 연계 정도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넷째 생활수준의 유사성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소비심리적 지지가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양국간 생활수준의 유사성 정도와 소득, 교육, 주거, 건강 등 가계 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그림 6>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구조차원 모형



<표 3>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구조차원의 구성요소와 측정변수

구성요소	측정변수	측정변수 설명 지표
산업구조의 보완성	양국수출 주력산업의 유사성 정도	Finger-Kreinin Index of Similarity): $[\sum \text{Min}(X_{lik} / X_{ik} , X_{ljk} / X_{jk})] \times 100$
	양국 무역의존도의 유사성 정도	(한국무역액 / 한국 GDP) / (일본무역액 / 일본 GDP)
	양국간 무역의 보완성 정도	(무역상관지수): $[\sum (TS_{lik} - TS_{ljk})(TS_{ljk} - TS_{ljk})] / \sqrt{[\sum (TS_{lik} - TS_{lik})^2 (\sum (TS_{ljk} - TS_{ljk})^2)}$
시장접근성	양국의 관세율	세계 평균 관세율 / 한일 평균 관세율
	양국의 통관비용	세계 평균 통관비용 / 한일 평균 통관비용 (컨테이너 당)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	물류품질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한일 평균
	무선통신의 연계성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 한일 평균
	유선통신의 연계성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한일 평균
생활수준의 유사성	소득수준	한국 인당 GDP / 일본 인당 GDP
	교육투자성향	한국 GDP 대비 교육비 비율 / 일본 GDP 대비 교육비 비율
	도시화 정도	한국 도시 지역 인구 비율 / 일본 도시 지역 인구 비율
	평균기대수명	한국 평균기대수명 / 일본 평균기대수명

- 한편 기대차원 모형개발 과정에서는 경제통합을 경제협력의 최상위 수준으로 가정하였음

- 지역통합지수는 기능적 통합지수(무역, 직접투자, 금융거래 등)+ 사회문화지수(문화의 동질성, 시민사회의 성숙도, 정보화 등)+ 정치안보지수(정치경제체제의 동질성, 정치안보 역학구조, 정치적 리더십 등)+ 제도적통합지수(분야별 협력, 무역투자관련 조약, 금융통화협력 등)로 설명됨
- 또한 전경련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지향하는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동북아, 북미 등의 지역경제통합 지수 관련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반영하였음
- 전경련은 <표4>와 같은 한일경제협력의 4가지 제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일간 협력 확대와 장기적 경제통합 등을 새로운 협력모형으로 제시하였음

<표 4> 한일경제협력의 4가지 제안(전경련)

글로벌시장에서의 협력 확대 (4세대형 경제협력)	아·태 역내 경제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수주, 자원공동 개발 확대 - 차세대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분야 협력 강화 - 신흥시장에서 양국 기업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FTA, RCEP, TPP 등 아·태경제 통합 가속화를 위한 민간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경단련 주도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확대 발전 • EU 비즈니스 유럽(35개국 41개 단체 참여) 벤치마킹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참여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은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리스크 완화 • 북한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참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한일축제 한마당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양국 기업간 인턴십 공유과 대학간 공동 학점이수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 강화

출처: 연합뉴스(2014.5.14.), 한일경제협력을 위한 4가지 제안에서 인용

- 최종적으로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은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 경제통합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으로 구성하였음
- 첫째,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과 기대 정도와 양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그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둘째, 경제통합 가능성은 한일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정도와 한일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 인식을 그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음

- 셋째,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은 경제협력의 시너지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정도, 제3국 공동 진출/공동기술개발/새로운 사업창출 등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의 구성요소와 측정변수는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의 구성요소와 측정변수

구성요소	측정변수	측정변수 설명 지표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기업)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국가)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가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경제주체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정도	양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정도(기업) 양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정도(국가) 양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정도(가계)
경제통합 가능성	한일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	한일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기업) 한일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국가) 한일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가계)
	한일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	양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
	한일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 인식	한일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 인식(정부 정책) 한일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 인식(국제정세) 한일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 인식(국민정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창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산업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제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

4. 지수 산정과 산출 결과

4-1. 지수 산정방법

- 경제협력지수는 2개 하위지수(성과지수, 잠재력지수)의 차로 산정하였으며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4개 구성요소의 합으로 산정하였고,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는 구조차원의 4개 구성요소의 합으로 산정되며, 기대차원은 3개 구성요소의 합으로 산정하였음
-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는 구조차원과 기대차원 각각 50점 만점으로 배점하였으며 각 구성요소별 점수 배점은 다음 <그림 8>과 같음

- 구성요소의 점수는 측정변수 점수의 단순평균을 구한 후, 해당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구성요소의 가중치는 AHP 방법론을 통하여 산정하였음
- 측정변수의 점수는 최근 7년간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년도 값을 1점으로, 최대년도 값을 7점으로 가정할 때, 해당년도 값은 상대적 점수를 환산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였음
- 예를 들어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 정도는 최소년도인 2009년을 1점으로, 최대년도인 2012년을 7점으로 가정할 때, 해당년도인 2013년은 6점으로 환산점수가 계산되었음
- 경제협력지수의 산정을 위해 국내외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출처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부록으로 정리하였음

<그림 8> 구성요소별 점수 배점



- 또한 기대차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였는데,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의 측정변수 데이터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된 한·일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음
- 설문조사는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일한경제협회 회원사, SJC(Seoul Japan Club)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에는 한국기업 139개 기업, 일본기업 21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대기업 18개 기업, 중소기업 142개 기업이 참여하였음

4-2. 지수 산정 결과와 의의

- 최종적으로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63.05점으로 산정되었고,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는 72.85점으로 산정되었다.
- 잠재력지수의 구조차원은 35.45점, 기대차원은 37.40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구성요소는 상품교류 24.69점, 자본교류 20.27점, 인력교류 7.05점 그리고 지식교류 11.03점으로 나타났음
-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는 구조차원의 구성요소는 산업구조의 보완성 4.49점, 시장접근성 18.42점,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 8.86점 그리고 생활수준의 유사성 3.68점으로 나타났음
-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는 기대차원의 구성요소는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 18.32점, 경제통합가능성 5.93점, 새로운 가치 창출가능성 13.15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9> 구성요소 및 차원별 점수 측정 결과



- 구성요소 및 차원별 점수 측정 결과는 다음 <그림 9>와 같으며 측정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 <그림 10>과 같음
- 경제협력지수는 잠재력 대비 성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경제협력 잠재력지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경제협력 성과지수는 86.55이므로, 2014년 경제협력지수는 86.55로 산정되었음

<그림 10> 구성요소 및 차원별 점수 측정 결과(100점 만점 환산점수)



4-3. 산정 결과의 의의

- 첫째 한일경제협력지수(ECI)가 100에 못 미치는 86.55를 기록하여 한일경제협력의 성과 점수가 잠재력 점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한일간 경제협력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성과지수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분야는 지식교류이며 그 다음으로 자본교류, 상품교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력교류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경제협력 성과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교류와 상품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인력교류가 낮은 것은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상품교류가 낮은 이유는 한일 양국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한일 양국간 무역보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량이 보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셋째 잠재력지수 구조차원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야는 시장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의 유사성과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이유는 양국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생활수준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한일 양국이 산업화 및 생활수준이 조기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최근 년도의 격차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임
- 넷째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에서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통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일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경제통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한일 주요 기업들은 양국의 경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에서는 한일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일경제협력지수’를 개발하여 한일경제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다양한 관련 문헌연구와 주요 경제지표 분석, 그리고 한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일경제협력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일경제협력의 성과 점수가 잠재력 점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경제협력 성과지수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인력교류와 상품교류가 낮게 나타났음
 - 셋째 잠재력지수 구조차원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야는 시장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의 유사성과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잠재력지수 기대 차원의 구성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
-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한일경제협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는 일정기간 동안 추진한 경제협력의 성과 뿐 아니라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잠재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일경제협력지수’를 통해 한일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둘째 한일경제협력의 성과가 잠재력 보다 낮다는 결과는 앞으로 경제협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인력교류와 상품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한일경제협력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한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넷째 지속적으로 한일경제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경제협력의 성과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발된 한일경제협력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발표하여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한일경제협력 지수 모형은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확대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협력 잠재력지수 기대차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일 기업뿐 아니라 정책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확인해야 하며 지수 측정에 이용한 구성요소 및 측정변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도 필요함
 - 둘째 한일경제협력지수는 ‘한중경제협력지수’ 또는 ‘한미경제협력지수’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국과 주요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지수를 개발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판단됨. 

〈참고문헌〉

- 박제훈(2010), 「동북아시아 통합에 관한 연구: 통합지수접근」, 『비교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4),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14』.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t.kita.net/>)
- 연합뉴스, 한일경제협력을 위한 4가지 제안, 2014.5.14.
- 한국무역협회(2014), 『한·일경제협력지수개발 연구』.
- Arvis, Jean-François, Daniel Saslavsky, Lauri Ojala, Ben Shepherd, Christina Busch, Anasuya Raj(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The World Bank.
- Bart Bonikowski(2010), Cross-national interaction and cultural similarity: A relat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1(5).
- Chen Bo , and Woo, Yuen Pau (2008), A Composite Index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s State of the Region Project.
- Duval, Yann and Chorthip Utoktham(2014)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UN ESCAP.
- Margareta Drzeniek Hanouz, Thierry Geiger, Sean Doherty(2014), 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 2014, World Economic Forum.
- OECD,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11.
- Ram C. Acharya, Someshwar Rao and Gary Sawchuk(2002), Building a North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Index An Exploratory Analysis, Micro-Economic Policy Analysis Branch Industry Canada.
- Schwab, Klaus(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World Economic Forum.
- UNCTAD(2007)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2007.
- World Bank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부록 1〉 경제협력 성과지수 측정변수 데이터 출처

측정변수	측정변수 설명 지표	데이터출처
양국간 무역의 세계무역 기여도	한일무역량 / 세계무역량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3
양국간 무역의 양국GDP 기여도	한일무역량 / (한국 GDP + 일본 GDP)	World Bank 무역통계, 2013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 한국의 대일본 수입액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3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총 해외직접투자 기여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 (한국의 세계 FDI 투자액 + 일본의 세계 FDI 투자액)	수출입은행, JETRO, 2013
양국간 직접투자의 양국 GDP 기여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 (한국 GDP + 일본 GDP)	수출입은행, JETRO, 2013
양국간 직접투자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FDI 투자액 / 일본의 대한국 FDI 투자액	수출입은행, JETRO, 2013
양국간 여행객수의 양국 총 해외여행객 수 기여도	한일간 여행객수 / (한국의 해외 여행객 수 + 일본의 해외 여행객 수)	한국관광공사 통계, 일본 법무성출입국관리통계, 2013
양국간 유학생 수의 양국 총 해외유학생수 기여도	한일간 유학생수 / (한국의 해외 유학생 수 + 일본의 해외 유학생 수)	교육부 통계, 본 법무성출입국관리통계, 2013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양국 총 기술무역액 기여도	한일간 기술무역액 / (한국의 전체 기술무역액 + 일본의 전체 기술무역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2
양국간 기술무역액의 불균형 정도	한국의 대일본 기술 수출액 / 일본의 대한국 기술 수출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통계요람, 2012

〈부록 2〉 경제협력 잠재력지수의 구조차원 측정변수 데이터 출처

측정변수	측정변수 설명 지표	데이터출처
양국수출 주력산업의 유사성 정도	Finger-Kreinin Index of Similarity): $[\sum \text{Min}(X_{lik} / X_{ik} , X_{ljk} / X_{jk})] \times 10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 수출액 기준 HS 코드 상위 10개 산업), 2013
양국 무역의존도의 유사성 정도	(한국무역액 / 한국 GDP) / (일본무역액 / 일본 GDP)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3
양국간 무역의 보완성 정도	(무역상관지수): $[\sum (TS_{lik} - TS_{ljk})(TS_{ljk} - TS_{ljk})] / \sqrt{[(TS_{lik} - TS_{ljk})^2 + (TS_{ljk} - TS_{ljk})^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 수출액 기준 HS 코드 상위 10개 산업), 2013
양국의 관세율	세계 평균 관세율 / 한일 평균 관세율	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3
양국의 통관비용	세계 평균 통관비용 / 한일 평균 통관비용(컨테이너 당)	World Bank, 2013
물류품질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한일 평균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3
무선통신의 연계성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 한일 평균	World Bank, 2013
유선통신의 연계성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한일 평균	World Bank, 2013
소득수준	한국 인당 GDP / 일본 인당 GDP	World Bank, 2013
교육투자성향	한국 GDP 대비 교육비 비율 / 일본 GDP 대비 교육비 비율	World Bank, 2013
도시화 정도	한국 도시 지역 인구 비율 / 일본 도시 지역 인구 비율	World Bank, 2013
평균기대수명	한국 평균기대수명 / 일본 평균기대수명	World Bank, 2013